

코로나발 '생계 공포'에 서민들 한숨소리 깊어간다

광주 확진자 '생계가 우선' 잠적...병원 대신 영광 공사장으로
일용직·가사도우미 등 사회적 약자 일감 끊기며 벼랑 끝 내몰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일 북새통...“지원금 언제 나오나” 발동동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당장, 코로나가 왔든 어쨌든 먹고 살아야겠다며 병원 대신, 공사장으로 뛰어가는 확진자가 생기는가 하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몰려들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계가 끊길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먼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사는 게 더 두려워=7일 보건당국과 동구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1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A씨(118번 확진자)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잠적했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붙잡혔다.

확진소식을 접한 A씨는 보건 당국 관계자와 통화에서 '주말까지 1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일해야 하는 처지라 삶에 미련이 없다'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일감을 찾아 영광군 농수로 현장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이틀간 광주지역 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지난 3일부터 일감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생계를 이유로 공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일감 부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일감이 끊기면서 코로나보다 당장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 태봉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송주찬 인력사무소장은 "일감이 부족해 오늘 인력사무소를 찾은 10여명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건설 현장들도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예년 같으면 일감이 넘쳐 인력을 서로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기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감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인력사무소끼리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 아침마다 각 인력사무소에 사람이 넘친다는 연락이 온다"고 푸념했다.

집 안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돕는 가사도우미들도 마찬가지이다.

광주YWCA가 지원을 받아 가정집에 투입하는 가사도우미들의 경우 수입이 끊긴 가사도우미들의 일감 찾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외부인과의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가사도우미들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YWCA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가사도우미 일감이 20~40%정도 줄어 들고 있다"면서 "기존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던 가정들도 보류나 취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대학생 김모(여·24)씨는 6개월 간 일했던 카페를 지난달 그만뒀다. 손님이 몰려 일손이 달려야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김씨가 일했던 가게는 경기 침체에 코로나19로 찾아오는 손님마저 없다보니 문을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북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줄을 서고 있다.

닫으면서 일반적으로 해고된 것이다. 김씨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에 손 내밀었는데...언제쯤 나오나=자영업·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살 길이 막막하다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목을 매고 있지만 언제 지급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 고용 복지플러스 센터는 연일 북새통이다. 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로 발 디딤틈이 없을 정도다.

7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오프라인 접수에서 지난 6일까지 3835명이 신청서를 냈다. 하루 평균 348명의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같은 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방

문자만 접수자의 2배가 넘는 9296명에 달했다. 특히 5부제가 풀린 지난 6일 하루에만 1485명이 방문해 600명이 신청서를 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광주지역이 오프라인 신청자가 많기로 전국에서 손에 꼽는다. 치과의사들도 25%수입이 줄었다고 지원금을 신청하러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8명의 인력을 총원하고 광주시에서 5명의 인력도 지원 받아야 금을 해가며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정부지원금이다.

하지만 2주 내 지급 해준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제 지급이 한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신청자들 사이에서 '한달이나 걸려 주면서 무슨 긴

급지원이냐'는 불만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고용복지센터측은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한달여 만에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심사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지원금을 신청한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55)씨는 "2주내 지급 가능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늦어도 3주내 지급이 완료된다고 들었지만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서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11층에 가있어 모른다고 이야기만 해 너무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고용부 전 직원이 매일 10건씩 지원금 서류 심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기존 지급센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달라붙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퇴근길 중앙선 침범 사망 2심서 업무상재해 인정

차를 운전하다 퇴근길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에게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고의의 사고를 내지 않았고 중앙선을 침범한 범죄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화물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차를 운전해 퇴근하다 강진군 군동면 전망대 인근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며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은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도로교통법을 위반(중앙선침범)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입제해보상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어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급커브길이라는 도로의 구조적 위험성과 미끄러운 노면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 사망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156조 1호)을 들어 A씨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QR코드가 뭐길래...가게들은 "피곤해"

대기줄 생기고 손님과 시비까지...전용 휴대전화 구입에 불멘소리로

"QR(전자출입명부)코드 도입으로 손님 얼굴 붉힐 일이 늘었습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일거리가 늘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카운터를 보는 시간이 많은데, 오는 손님마다 QR코드를 찍었는지 확인해야하고 설명도 필요해 다른 일은 할 수도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손님들도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이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 12개 업종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가뜰이나 손님도 없는데 QR코드 전용 휴대전화까지 구입해야할 처지라며 불멘소리를 낸다. 또 QR도입을 알지 못한 손님들과 사용법에 능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주취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번거롭다며 기피하는 젊은층을 설득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서구의 한 뷔페식당 관계자는 "나이 드신 손님들은 사용하지 잘 몰라 설명하거나 대신 해드려야해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며 "저녁 시간대에는 QR코드 때문에 대기줄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코인노래방 사장 B씨는 최근 QR코드 전용 휴대전화로 중고 휴대폰 2대를 20만원에 구입했다. 손님이 올 때마다 QR코드를 찍어야하는데, 업무나 개인적으로 전화

를 사용하려면 따로 휴대전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휴대전화만 놓고 영업해서는 안된다. 상시 관리자가 전자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B씨는 "손님이 비교적 적은 오전에는 아르바이트생 없이 운영하려 했는데 구멍에서 상시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QR코드로 인한 시비도 잇따르고 있

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흥주점과 헌팅포차의 경우 술에 취한 손님들 가운데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막무가내 식으로 입장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시내 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3803곳 가운데 2755곳(72%)이 설치, 운영중으로, 광주시는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 이하의 형을 내릴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군 부사관 부대서 총상 동료가 발견 병원 이송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부대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군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7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1전비)과 광주공안경찰 등에 따르면 A 부사관이 이날 오후 2시 40분경 부대 무기고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해당 부사관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비행단측은 A 부사관이 쓰러진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